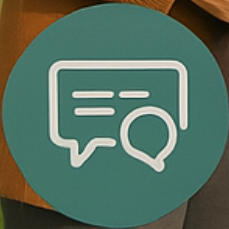


국내 거주 외국인 연구자의 성장과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책제언



국내 거주 외국인 연구자의 성장과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정책제언

2025.8.6, 인재정책센터 김인자 연구위원, 김경민 연구원

요약문

□ 주요 내용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연구자들은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첨단 연구시설·장비, 풍부한 연구 자금 등으로 연구 경력 발전 가능성 때문에 한국행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연구 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
- 하지만, 과중한 업무 및 낮은 처우, 연구의 연속성·안정성 및 연구기회 부족, R&D지원시스템 접근성 제약, 언어장벽, 한국어 문서 작성 및 행정부담, 승진 기회나 취업 정보 부족, 경직된 조직문화 등에 불만족
- 생활에서도 언어 문제에 따른 의료·은행·관공서 등 생활 서비스 이용 불편과 한국어 교육 부족, 문화적 소외감, 높은 주거비, 자녀교육 및 배우자 취업 문제, 비자 발급·갱신 절차 복잡 등의 어려움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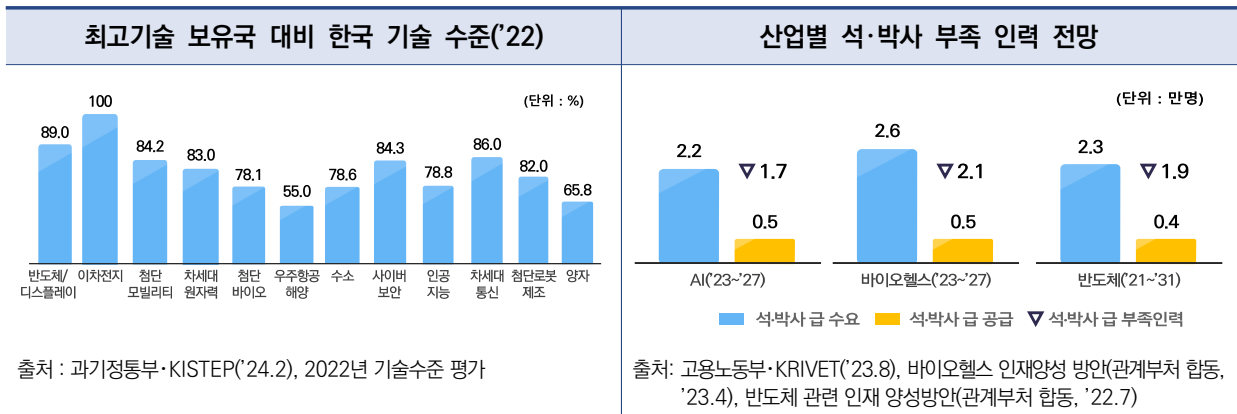
□ 결론 및 정책제언

- 글로벌 인재의 유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을 위해 우수 외국인 연구자의 유입 매력도와 연구·생활환경의 만족도를 높여 정착하도록 '유입 촉진 - 성장·활약 - 적응·정착'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유입 촉진) 글로벌 수준의 처우개선, 해외 Top-Tier 연구자의 연구-정주 풀 패키지 지원, 최첨단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연구생태계 홍보강화, 언어·주거·생활 등 초기 적응 전주기 지원강화
 - (성장·활약) '외국인 전용 펀드' 신설, R&D지원시스템 영문 고도화 등 연구 기회 확대, 이중언어 행정문서 지원 및 행정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화,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개방적·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 (적응·정착) 시기반 다국어 통번역 공공서비스 지원, 한국어 및 사회통합 교육 확대, 주택자금 대출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및 저리 지원,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및 학비 혜택, 배우자의 취업 지원, 비자 제도 개선

※ 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글로벌 인재 허브 실현을 위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 유치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개인적 견해를 밝힙니다.

1 작성 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격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술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 선도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뿐 아니라 즉시 활용할 해외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및 R&D 예산 삭감에 따라 우수 외국인 인재의 미국 대이탈 조짐을 기회로 삼아 이들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전개
 - * 미국 내 STEM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26%, S&E분야 외국인 박사급 인력은 42.8%를 차지함으로써, 바이든 정부는 해외 인재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NSB, '24.3),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반이민 정책 강조
 - ** (프랑스) 국가연구청(ANR)은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해 'Choose France for Science' 이니셔티브 발표('25.4.17)
 - 또한, 글로벌 인재들의 국제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치뿐 아니라 자국 내에 계속 유지, 정주 시키려는 정책으로 전환
 - * (유럽)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유럽 내 정착하는 방안을 담은 '유럽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23.7)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분야의 고급인력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 인구절벽시대 진입으로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활용이 매우 중요
 - 국가전략기술의 격차를 견인하고, 증가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석·박사 고급 인력 공급 부족이 전망



-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공계 석·박사생은 202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 경에는 현재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 전망
 -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 ('23) 3,657만명 → ('30) 3,417만명 → ('40) 2,903만명 → ('72) 1,658만명
 - ※ 이공계 석사과정생은 ('25) 약 7만명 → ('48년) 약 4만명 이하로, 박사과정생은 ('25) 약 4만명 → 약 2만명으로 감소 전망(STEPI, '22)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인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인재가용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수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유치·활용을 모색할 필요

- 본 브리프는 지속적인 국가성장 동력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연구자들 대상으로 ‘유입 - 성장·활약 - 적응·정책’에 관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유입된 외국인 연구자는 단기간에 거주*하며 정착 비율이 낮은 상황**
 - * '10년에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연구자(E-1, E-3)의 체류 비율('19년 기준) : 5년 이내 66.5%, 5~10년 이내 : 13.4%, 10년 이상 19.6% 및 10년간('10년~'19년) 귀화 건수 65건(자격취득 건수 대비 0.3%) (이민정책연, '21)
 - ※ (미국) '21년 기준 박사 S&E 학위를 가진 임시비자 소지자의 체류율 : 5년 이상 약 71%, 10년 이상 65% (CSIS, '24.4)
 - (독일) '23년 기준(분야 무관) 외국 국적자 거주 비율 : 10년 이내 59.8%, 10년 이상 40.2% (BAMF, '25.1)
 - 과학기술인재의 양적 부족 완화 및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해 그간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정책 패러다임에서 유입된 우수 인재들을 정착, 유지시키는 정책으로 확대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 우수 외국인 과학기술인재들의 유입-성장·활약-적응·정책으로 여정이 이어지도록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연구자들 대상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2 국내외 정책 동향

- (미국) 우방국 중심의 인력교류, 국가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 및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외 인재 유입 추진
 - 미국 내 정부·비정부의 많은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국방, 우주, 주요기술 분야에서는 참여가 제한*되고, 우방국 중심의 인력교류·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 * NIH, 대학, 구글, IBM, APPLE 등의 박사 펠로우십은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으나, 국방과학공학대학원(NDSEG) 펠로우십, 미국디지털서비스(USDS) 펠로우십, NASA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시민권자만 참여 가능
 - ** 풀브라이트 프로그램('20년 중국과 중단), 미국·일본·인도·호주 쿼드펠로우십(Quad Fellowship) 운영('23.8), NSF는 국가 간 협력프로그램(영국: 양자, AI, 로봇공학, 한국: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경제 등)을 통해 외국인 연구자 지원
 -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외 외국인 인재의 선별적 유입 및 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비자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이탈 조짐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 고급인재와 지적 노동자에게 EB-1, EB-2 영주권 발급, EB-2 중 유망·핵심기술분야 인재는 고용허가서, 고용주 스폰 등의 요구조건 없이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 부여
 - 단기 취업비자 중 우수 인력에게 H-1B(전문직)*, O-1(탁월한 과학자 등) 발급 및 STEM 분야 유학생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최대 3년 체류 가능
 - * 2026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을 등록한 외국인들은 전년 대비 25.3%(479,953명 → 358,737명) 감소
 - 급증하는 AI 인재 수요를 위해 비이민·이민 경로 설명, AI 연구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채용 공고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 국가AI자문위원회는 AI인재 유치 비자 정책 완화 권고('25.1)
 - * 현재 관련 홈페이지(<https://ai.gov/immigrate/>) 폐쇄
 -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어학 및 직업능력 개발 교육 지원,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동허가나 고용 조건 신청 과정에서 고용주에게 법률 준수 서약 의무와 제재 기준 명시
- (영국) 세계 최고의 인재 및 고급기술(highly skilled) 인력만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
 -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영국 계획」('23.3)*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유치의 매력적인 연구장소 조성 및 세계 최고의 인재 영입을 위한 투자 강화
 - * 양자, 슈퍼컴퓨팅, AI 등 첨단분야 육성 및 글로벌 인재 영입을 위해 '30년까지 3억 7천만 파운드 이상 지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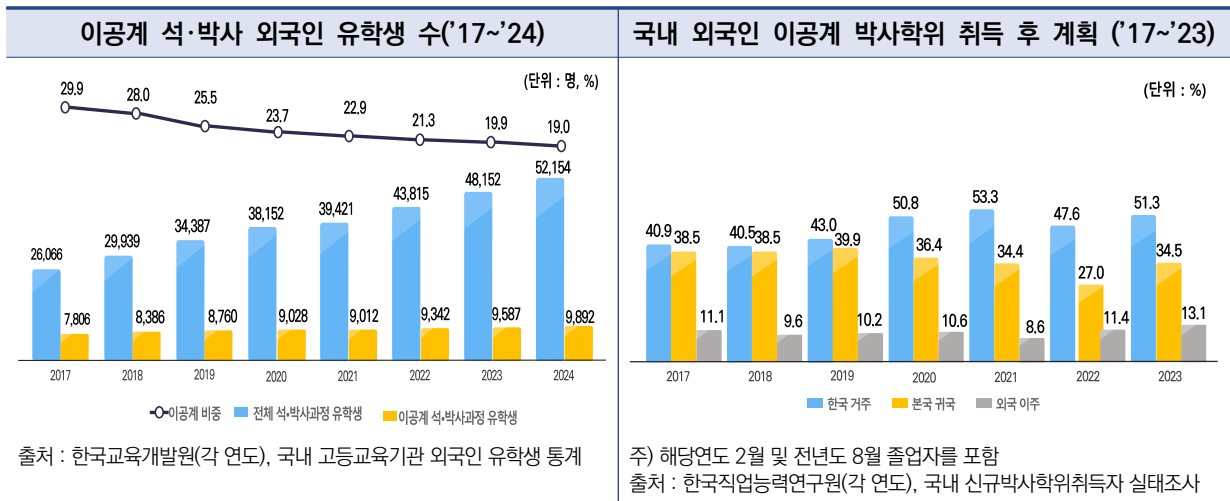
- 연구혁신기구(UKRI), 영국왕립학회(The Royal Society)는 국적 관계없이 신진연구자 펠로우십 지원 및 세계 수준의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Global Talent Visa와 연계
 - 생명과학, 디지털 기술분야 등 8개 분야의 세계 최고 인재 유치(60명~80명 규모)를 위한 TF 신설 및 5,400만 파운드 펀드 조성 (DSIT, '25.7.18)
- 고급기술 인력만 선택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4년 이민법* 개정 및 AI,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이 시급한 인재 유입이나 인재 풀(pool)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운영
 - * 브렉시트('20) 이후 느슨한 이민정책으로 이민자 수 급증에 따라 공공서비스 및 주거비 상승, 임금 약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박사과정 및 연구 중심의 석사과정 학생만 가족 동반 가능, 최저연봉 기준 인상(£26,200 → £38,700) 등 요건 강화
-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영국에서 일하고 연구하도록 Global Talent Visa('20.2)* 및 High Potential Individual 비자('22.5.)** 제공
 - * 가족동반 허용, 자유로운 체류와 근무를 보장하며 영주권 신청 기간(5년 → 3년)을 단축하여 유입 인재 유출 방지
 - ** 글로벌 상위 50개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취업 조건 없이 단기 체류 허용(학·석사 2년, 박사 3년)
- (독일) MINT*분야 전문인력 부족을 독일 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해외 전문인력 유치·유지 정책 전개
 - * 수학 Mathematik, 컴퓨터공학/정보공학 Informatik, 자연과학 Naturwissenschaft, 공학 Technik
-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해외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 및 장기 거주를 위한 권고안* 마련, 독일 4대 연구협회는 연구혁신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과학자 비율**에 대해 매년 모니터링 실시
 - * 전문가격 인정과정의 처리절차 간소화, 디지털화, 행정언어로 영어 소통 확립, 장기 거주를 위한 생활정보 제공 등
 - ** '23년 막스플랑크연구협회 59%(6,002명), 헬름홀츠 30%(8,211명), 라이프니츠 30%(3,728명), 프라운호퍼 14%(1,773명) (독일 GWK, '24)
- 독일학술연구자협회(GSO), 국제학술네트워크(GAIN), 훔볼트재단은 해외 거주 중인 내·외국인 연구자에게 체류비·연구비, 펠로우십 및 MINT분야 귀국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히, 미국 과학자 유치를 위해 '1000 브레인 프로그램(1000 Köpfe-Programm)'을 계획하고, 인프라·기후 패키지 5,000억 유로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중
- 전문인력이주법 시행('20.3), 제3국 구직자의 기회카드* 도입('24.6) 및 취업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 * 전문인력 체류허가 요건 및 가족결합 요건 완화, 외국인 대학생과 직업훈련생의 체류 및 취업요건 완화
 - ** 외국인 취업정보 포털 전문인력공세, 연구정보플랫폼, 전문인력 독일 진출을 위한 Make-It-In-Germany 포털 운영
- (일본)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에 대비하여 두뇌순환 및 유치·유지 정책 추진
 -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과학기술의 국제 전개에 관한 전략」('22.3), 「해외로부터 인재 및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액션플랜」('23.4), 「신일본혁신인재전략(안)」('24.5)* 마련
 - * 글로벌 학생-대학 간 교류 촉진, 전략적인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활용 촉진, 해외 우수 인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산업계와 연계하여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채용 등을 제시
 - 일본학술진흥회(JSPS)는 경력단계, 초청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및 해외 연구자의 유입 촉진을 위해 세계 최상위 연구거점 프로그램(WPI)** 추진
 - * 외국인 특별연구원 제도(단기/일반/전략적 프로그램), 외국인 연구자 초청 사업(단기/장기) 등을 통해 연구비, 항공비, 체재비 지원
 - ** 2007년부터 현재('23)까지 18개 연구거점 선정(연 거점당 7억엔~14억엔, 10년~15년), 행정 및 연구지원의 표준어로 영어 채택, 외국인 연구자 비율 약 40% 수준, 노벨상 3명 배출 (WPI, '24.6)

- 또한, 일본학술진흥회(JSPS)는 미국을 이탈하는 연구자 유치를 위해 1,000억엔 투자 및 외국인 행정부담 경감 방안 검토
 - 고도인재 외국인 수용 및 정착을 위해 '일본판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 도입('17.1)* 및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 신설('23.4)**, JASSO 유학생 취직 지원
 - * 고도외국인재는 포인트 75점인 경우 체류기간 3년, 80점 이상은 체류기간 1년만에 영주권 가능
 - **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는 고도전문직 1호에서 2호로 이행기간 단축(3년 → 1년),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는 세계대학 랭킹 100위 이내 졸업자 대상 최대 2년 취업활동 허용, 가족 동반 가능
- (중국) 미국의 디커플링 전개에 따라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한 축으로 해외 인재 유치정책 적극 추진
- 「백인계획」('94), 「천인계획」('08), 「고급외국인전문가유치계획」('19), 「14차 5개년 계획」('21.3)을 추진하여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강화
 - 국가 주도의 해외 인재 유치사업 추진* 및 국가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신청 가이드라인('21.7)을 마련하여 외국인 우수학자의 중국 연구과제 참여를 독려
 - * 중국과학기술부는 고급 외국인전문가 유치사업, 일대일로 '혁신인재교류를 위한 외국인 전문가 지원사업', 외국인 학자연구기금사업 등 추진
 -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인재, 수요가 시급한 전문인재에게 R비자 발급(2주 이내 가능) 및 '외국인 영구거주관리조례' 개정('20.2)*, 국적·소속 불문의 "과학기술 포상금제"*** 마련
 - * 중국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인재로 인정받으면 중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 주택지원, 업적장려금(상근 인재 20억원(1,000만 위안), 유연 인재 4억원(200만 위안), 자녀 입학 및 배우자 취업 지원 등
- (한국) 핵심기술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의 전략성 강화 및 장기 거주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추진
-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의 각축장 속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23.8)*,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24.9)** 마련
 - * '27년까지 3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유치 및 정주지원, 첨단·신산업 선도 인재 전략적 유치 등의 추진과제 제시
 - ** 첨단산업 해외고급인재 1천명 유치(~'30), 해외인재 유치 매력도 Top 20 이내(~'34) 목표를 제시하고 특별비자+정주 프로그램(K-Tech Pass) 신설, 해외 인재 유치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체계 마련 등
 - 과기정통부는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94)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자 또는 산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를 유치하며, 석학 정규직 영입(BP+, '20), 국가 전략성 연계를 위해 '기관 유치형'('25) 신설 등 사업 개편 추진
 - 해외 고급 인력 대상으로 사이언스카드('01), 골드카드('00)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재 영주·귀화 패스트랙 제도('23)*, K-Tech Pass 프로그램('25)** 등을 신설하여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 추진
 - * 4대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 석·박사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없이 거주(F-2) 허용, 연구 지속 시 영주자격 부여, 연구실적 우수자 특별귀화 지원
 - ** 첨단산업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게 거주(F-2) 부여 후 3년 경과 시 영주권 신청 가능, 부모 및 가사도우미 동반 허용,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컨시어지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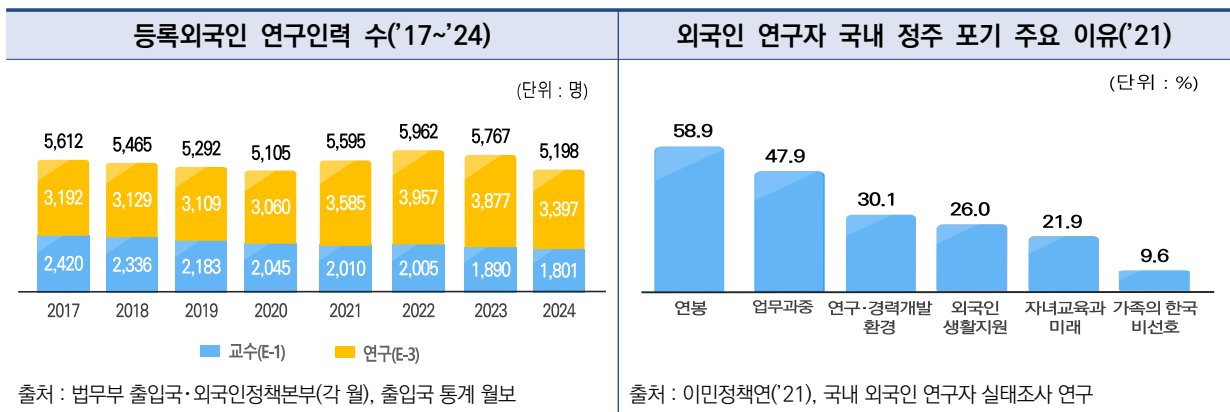
3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유입된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장기 체류도 낮은 상황

- 우리나라의 두뇌유출 수준은 높고, 글로벌 인재 유치 순위나 유입 매력도는 중하위권 수준
 - ※ 두뇌유출 수준 : ('18) 43위 → ('21) 24위 → ('24) 30위 / AI 인재 이동 지수 : ('23) -0.30 → ('24) -0.36
 - 해외 고급인재 유입 매력도 : ('18) 49위 → ('21) 46위 → ('24) 38위 (IMD, 각 연도 / Stanford HAI, 각 연도)
- (외국인 유학생)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은 소폭 증가 추세이나, 국내 체류 비중은 약 5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



○ (연구인력) 등록 외국인 연구인력(E-1 교수, E-3 연구) 규모는 답보 상태이며, 낮은 처우, 업무과중, 경력개발,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정주 포기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연구자들의 성장·활약 기회 부족 및 조직 내 개방적·포용적 문화는 미정착

- 외국인 연구자의 R&D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며, 행정부담으로 연구몰입도** 저하
 -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국가R&D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자 현황은 '23년 1,263명 수준 (과기정통부, '24.6)
 - ** 연구자 1인당 지원 인력('23) : (한국) 0.22명, (일본) 0.25명, (독일) 0.63명, (프랑스) 0.48명, (영국) 0.53명
 - 연구 활동 시간 비율 : (한국) 37.3%('16), (미국) 56.0%('18) ※ 나머지 사간은 교육·연구비 수수 등의 활동에 할애 (과기정통부, '24.8)

- 또한, 현행 대부분의 사업이 해외 인재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지원정보**도 부재

* 현재 해외우수과학기술지원사업은 이공학학술연구지원사업이나 세종과학펠로우십사업은 외국인 국적자 제외

** 국내 연구기관 및 연구시스템, 연구장학금 및 펀딩정보, 생활정보, 외국인 연구자의 성공사례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부재

-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에서의 외국인 정규직 채용 비중이 낮아 개방성·다양성이 부족한 환경
 - ※ 전임교원 수('23) 1,067명(4.5%), NST 과기계 출연연 정규직('24.6) 37명(0.25%), 기업 연구개발인력('23) 3,410명(0.7%)
 - ※ 이민자에 대한 포용 지수('23) : 58.46점, 66위 (INSEAD, '23.11)

□ 외국인 연구자들의 장기 거주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처우나 활용 기반 구축이 미흡

- 국내 외국인 연구자는 대체로 단기기간의 고용계약으로 근무하며, 年 근로소득도 내국인과 격차 존재
 - ※ 외국인 연구자 고용계약 기간 : 2년 미만 58.1%, 2년 이상-3년 미만 9.9%, 3년 이상 12.6%, 대학원생 9.6% (이민정책연, '21)
 - ※ 연 근로소득 : (4천만원 미만) 외국인 79.3%, 내국인 35.4% / (4천만원 이상) 외국인 20.8% 내국인 64.6% (직능연, '21~'23)
- 중소·중견기업은 언어장벽, 제반비용 부담, 채용정보 부족 등으로 외국인 인재 채용에 소극적
 - ※ 외국인 연구인력 희망하지 않은 이유 : 의사소통 어려움 21.0%, 숙박비 등 제반비용 13.0%, 채용정보 부족 11.3%, 비자발급 어려움 10.8% 등 (산기협, '23.12)

4 정책수요 조사개요 및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연구자의 정착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국내에서 성장·활약, 정착을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 발굴

□ 조사 범위 및 방법

- (조사 대상) 국내 거주 중인 산·학·연 이공계 외국인 연구자 및 박사후연구원
 - ※ 국내 주요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 및 정부출연(연)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선별
 - ※ 산업계는 KIRD '2023 GLOBAL S&T HRD Forum'에서 외국인 연구인력 경력개발 발표자들 대상
- (조사 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
 - ※ 사전 연락을 취해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서면 인터뷰
- (조사 기간) 2024. 11. 1. ~ 2024. 11. 11. (11일간)
- (조사 항목) 기본정보, 유입배경 및 경로, 연구·생활환경, 향후 체류 계획, 기타 사항 등

〈표 4-1〉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조사내용
기본정보	- 학위, 전공, 국적, 체류기간, 거주지역, 체류자격, 가족동반 여부, 연구실 규모 및 연구비
유입배경 및 경로	- 한국행 동기나 이유, 정보습득 경로, 초기 유입 시 어려운 점
연구환경 및 생활환경	- 연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점 및 불만족스러운 점, 개선 사항 - 한국 생활에 어려운 점 및 개선 사항
향후 체류계획	- 한국 체류계획 및 이유
기타 사항	- 한국 정부가 외국인 연구자의 유치, 성장·활약, 정착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 등

□ 응답자 특성

- (학위 및 고용 형태) 응답자는 총 13명으로 학위별로는 박사 11명(국내 4명 / 국외 7명), 석사 2명(국내 2명), 고용 형태는 정규직 7명(대학교수 / 연구자), 비정규직 6명(박사후연구원)
- (국적) 대학, 출연(연)에 소속된 직원은 북미, 유럽 국적이며, 중소기업체나 박사후연구원은 주로 아시아권 출신이 차지
- (비자) E-1(교수) 3명, E-3(연구) 6명, F-2(거주) 3명, F-5(영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 이상 체류 자 중 거주나 영주 비자로 전환한 경우는 많지 않은 수준

〈표 4-2〉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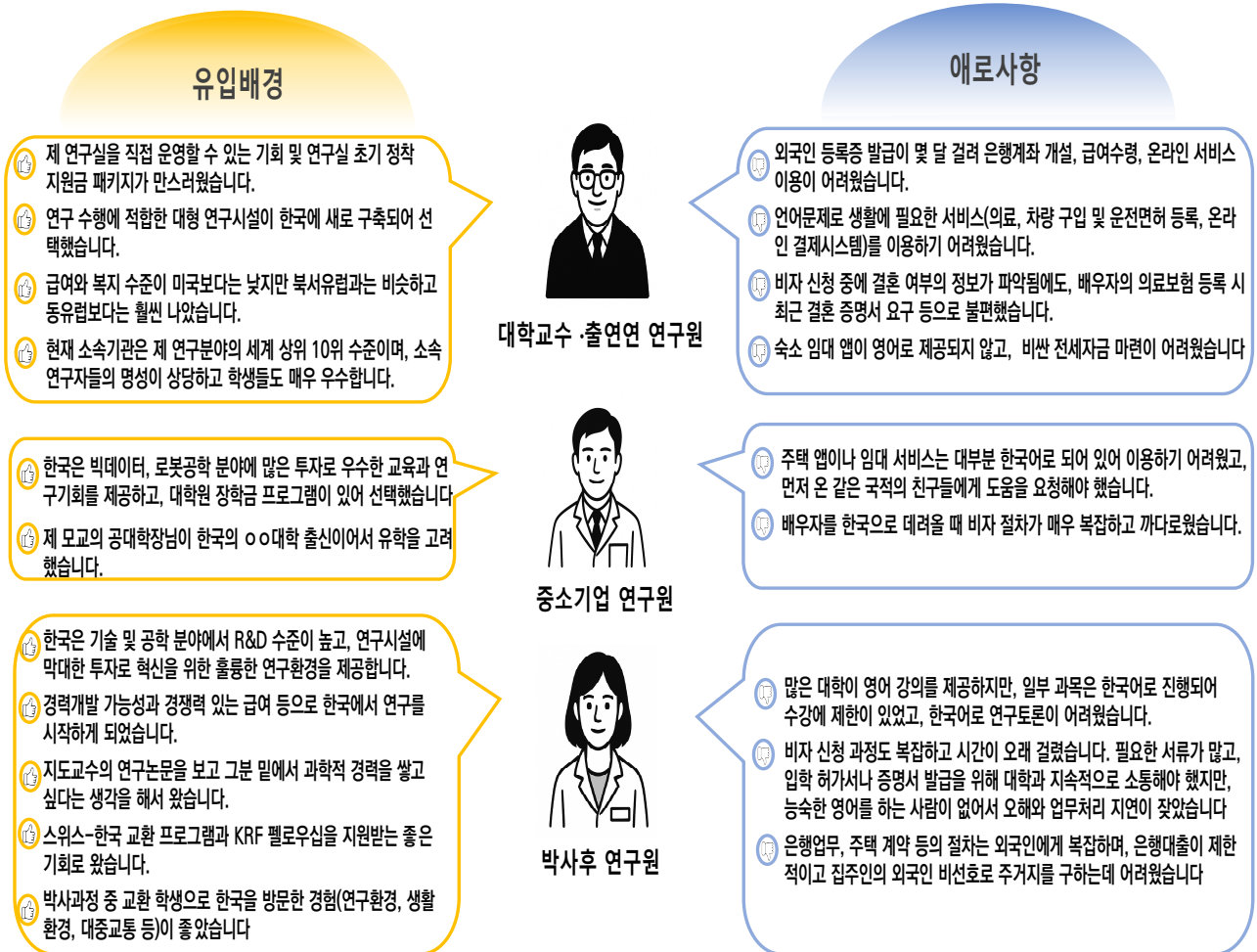
구분	대상자	학위	전공	비자	체류기간	국적
대학 교수 (3명)	• 외국인 A교수	국외 박사	생명과학	E-1	4년 6개월	독일
	• 외국인 B교수	국외 박사	컴퓨터공학	E-1	1년 4개월	미국
	• 외국인 C교수	국외 박사	수학	E-1	1년 4개월	루마니아
출연연 연구자 (2명)	• 외국인 D연구원	국외 박사	물리·지질학	E-3	11년 이상	캐나다
	• 외국인 E연구원	국외 박사	생화학	E-3	13년 8개월	미국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2명)	• 외국인 F데이터과학자	국내 석사	과학기술 정보과학	F-2	9년 8개월	베트남
	• 외국인 G연구원	국내 석사	로봇공학	F-2	5년 9개월	파키스탄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교수 (6명)	• 외국인 H박사후연구원	국내 박사	전자전기 공학	E-3	8년 10개월	파키스탄
	• 외국인 I박사후연구원	국내 박사	물리학	E-3	6년 4개월	베트남
	• 외국인 J박사후연구원	국외 박사	화학	E-3	5년	폴란드
	• 외국인 K박사후연구원	국내 박사	생명공학	F-5	13년 2개월	이란
	• 외국인 L박사후연구원	국내 박사	생명공학	F-2	4년 11개월	인도
	• 외국인 M연구교수	국외 박사	화학	E-3	4년 9개월	독일

2)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가. 유입 배경 및 애로사항

- 외국인 연구자들은 한국행 선택 시에 해당 연구 분야의 명성, 연구경력 발전 가능성, 우수한 연구 인프라, 경쟁력 있는 급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
 - 대학·출연(연) 외국인 연구자들은 연구책임자 기회, 첨단 연구시설·장비, 우수한 학생 및 연구진, 해당 연구 분야에서 소속기관의 높은 평판, 경쟁력 있는 급여 등으로 직책 수락
 - 중소기업 연구자들은 국내 학위자로서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GKS), 첨단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우수한 교육과 연구기회, 지한파 출신 교수의 영향으로 한국을 선택
 - 박사후연구원들은 우수한 연구 수준, 풍부한 연구비, 지도교수의 평판,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구자로 성장 가능성, 경쟁력 있는 급여 등으로 한국에서 연구를 시작
 - 이밖에 인턴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등 사전 경험이 있는 자들은 한국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인식도 주요하게 작용
- 국내 외국인 연구자들은 한국에서의 연구 기회 정보를 주로 사적 네트워크, 장학 프로그램 웹사이트 등을 통해 얻으며, 스스로 연구환경이나 일자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
 - 외국인 연구자들은 한국에서의 연구 기회 정보를 주로 지인(인턴십 참여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만난 교수나 연구자 등)으로부터 얻거나 양국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
 - 국내 학위과정으로 처음 온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 장학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알고,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 있는 친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교수로부터 제공받음
 - 특히, 한국의 우수한 연구환경 홍보 부족 및 일자리 정보가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어 지인의 도움 없이는 연구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응답
- 한국으로 처음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언어장벽으로 생활 서비스 이용 불편, 숙소를 구하는 문제 및 비싼 주택보증금 마련, 비자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 등을 경험
 - 처음 이주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제로 생활 서비스(의료, 차량 구입, 운전면허 등록, 온라인 결제시스템)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에 봉착
 - 또한, 주택임대 관련 서비스 앱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외국인은행 대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비싼 주택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음
 - 본인 및 동반가족 비자 신청 과정이 복잡하여 오래 걸리고, 행정 시스템 간 연계 미흡으로 동일한 서류의 반복적인 요구로 불편을 경험

- 석박사 과정으로 처음 온 유학생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일부 과목은 수강이 제한되고, 연구 관련 토론이 한국어로 진행되어 참여 어려움을 경험



- 반면, 연구환경의 불만 사항은 과중한 업무 및 낮은 처우, 장기적 연구의 안정성 부족, 국가R&D 지원시스템 활용 불편, 한국어 문서 작성, 의사소통, 수직적 조직문화, 경력개발 기회나 취업 정보 부족 등을 제시
 - 업무 과중으로 하고 싶은 연구 주제를 찾고 준비할 시간 부족, 전문성 제고나 학생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 연구의 안정성 부족, 선전국 대비 경쟁력 없는 급여 등에 불만족
 - 국가R&D지원시스템이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어 정보검색이나 준수사항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연구시설·장비 활용 시스템도 한국어로 제공되어 예약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
 - 연구비 신청 절차 및 연구비 사용의 행정적 요구사항이 많아 복잡하며, 한국어 문서 작성에도 큰 어려움이 존재
 - 대부분의 세미나가 한국어로 진행되어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협업이 어렵고, 외국인 연구자 지원 펠로우십도 충분치 않아 경력개발이나 성장에 한계가 존재
 - 한국 사회의 포용성 부족 및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의 연구커뮤니티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제한적이며, 조직 내에서 승진기회가 부족하여 리더로서 활약하고 기여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의 제한된 자원으로 성장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멘토링이나 경력개발 교육 기회가 부족
 - 대학 주최 채용박람회는 한국인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연구인력이 지원가능한 일자리인지 파악이 어렵고 산업계 취업 정보도 부족
 - 한국의 위계질서 조직문화로 연구실 구성원 간의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데 제약이 존재
 - E-7 비자 발급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 서류가 많고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
 - 행정 체계가 한국어 기반으로 비자, 보험, 세금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이러한 전문지식과 능통한 영어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에도 불편

연구환경 (만족)

- ① 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구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인 동료들 보다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 ② 대학에 뛰어난 교수진과 학생들이 있고, 대학에서 수준 높은 학회, 회의를 조직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제공해줘 만족합니다.
- ③ 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출연연 기본연구비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우수한 연구진과 일할 기회가 좋습니다.
- ④ 최첨단 연구시설 인프라는 연구수행에 동기부여를 부여해줘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교수·출연연 연구원

연구환경 (불만족)

- ① 다른 국가의 유사한 연구실과 비교 시 2명 이상의 일을 해야 하므로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 할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② 장기적 연구 안정성 및 정책 일관성 부족은 3년 안에 졸업을 보장할 수 없어 우수학생들의 참여 독려가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 따라 과학 기술 정책방향 변화는 과학연구 투자 시간을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해 고민하는데 소비합니다. 한국이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원한다면 연구자가 장기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 ③ WCI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단 5년간 유지되어 성과창출 한계 및 예산낭비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 ④ 한국연구재단(NRF) 심사위원회나 한국 과학 학회에 초청받은 적이 없어 국내 연구 커뮤니티와의 통합에 제한적입니다.
- ⑤ 논문이 45,000번 이상의 인용을 받고, Nature 같은 저명한 저널에 다수 발표, 노벨상 수상 논문에 참여했지만, 한국의 관심이나 언론 보도가 미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 약화됩니다
- ⑥ 언어장벽으로 승진기회가 없어 리더로 활약하고 흥미로운 연구를 해서 한국에 기여하고 싶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습니다.
- ⑦ 연구지원시스템이 한국어로 되어 정보접근이 어렵고, 연구비 사용용도도 엄격해 불편하고 행정업무나 한국어 문서작성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⑧ 공공기관의 낮은 급여로 계속 정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①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학회 참석, 논문발표 기회와 첨단 연구시설(AI 모델 훈련 GPU 서버)을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 ② 회사 내에 다국적 인력 구성으로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성, 한국어·영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만족합니다.
- ③ 동료들도 친절하며 요청 시 항상 기꺼이 도와줍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 ① IT업 소속이지만 생물학 및 신약개발 분야의 배경지식을 쌓아야 하며, 복잡하고 특수한 데이터와 전문 도구를 다루고, 영어와 한국어의 새로운 용어를 익혀 연구제안서, 특허 지원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② 대부분 회의가 한국어 진행되어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 어렵습니다.
- ③ 스타트업 기업이라서 체계적인 멘토링이나 경력개발 기회가 부족합니다.
- ④ 급여나 복지, 보상 등 복리후생이 낮은 수준입니다.
- ⑤ 회사의 전문 담당자가 비자발급(E-7) 업무를 담당하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① 훌륭한 연구자들의 멘토를 통해 경력과 학문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연구자금 및 연구인력이 훌륭하고, 첨단연구장비 및 시설 등으로 효율적이고 혁신적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우수한 인프라 및 첨단 연구장비의 자유로운 접근으로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했을 연구가 가능합니다.
- ④ 다양한 산학 협력연구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방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좋습니다.



박사후 연구원

- ① 연구지원서비스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번역 앱(예: 구글, 파파고 등)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연구비 신청, 프로젝트 제한사항, 준수요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 ② 대부분의 연구시설은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장비 이름, 요구사항, 신청 가이드가 주로 한국어로 되어 있어 예약하고 활용하는데 어렵습니다.
- ③ 대부분의 세미나가 한국어로 진행되어 해당 분야의 다른 과학자들과 네트워킹하고 협력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 ④ 한국사회의 강한 위계질서는 연구책임자와 팀 구성원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저해하고 문제해결책을 찾는 데 어렵게 합니다.
- ⑤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펠로우십과 연구자금이 충분치 않아 연구실의 정해진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 ⑥ 대학 주최 채용박람회 는 한국인과 한국 대학 졸업생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연구자가 지원가능한 일자리인지 확인하는데 어렵습니다.
- ⑦ 대부분의 행정문서와 의사소통은 한국어로 이루어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⑧ 비자, 보험, 세금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영어가 능통하고 외국인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직원도 없어 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림 4-2] 연구환경 인터뷰 주요 내용

□ 한국의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불충분한 한국어 교육지원, 언어장벽으로 의료·은행·관공서 등 생활서비스 이용의 불편, 높은 주거비, 주택 관련 정보 부족 등을 언급

○ 한국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어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지원은 충분치 않음

○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매우 훌륭하지만, 주치의 제도가 없고 의사들과의 소통 어려움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존재

○ 대부분의 지역 공공서비스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높은 주거비 및 생활비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관공서 업무나 대출, 투자, 국제거래 등의 은행 서비스 이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 한국에서 주택임대나 구입을 위한 정보 부족 및 복잡한 서류 등으로 이해도가 부족하여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나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한국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및 문화차이로 비공식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문화적 소외감을 경험

생활환경 (불만족)



대학교수·출연연 연구원

- ① 대학 내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대학 밖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 ② 언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고 있어 한국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소속기관은 1년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일정에 맞는 한국어 교육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③ 한국어 수업이 주 1회만으로 충분치 않아 야간 강좌를 수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매일 혹은 격일로 근무 시간 중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④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훌륭하지만, 대부분의 의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주치의 제도가 없어 불편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 ① 한국어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조직에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제품관리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 ② 건강보험 등록, 세금 이해, 지역 자원 활용 등에서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 ③ 장기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고 싶으나, 구매절차, 주택담보, 세금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박사후 연구원

- ①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임금 내에서 숙소, 교통, 일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② 대학 건강보험을 받고 있지만, 지역 의료진 대부분이 한국어만 사용하고 외국인과의 소통을 꺼려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큼니다.
- ③ 13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가졌지만 은행 서비스는 여전히 어려우며, 대출, 투자, 국제 거래 등이 제한되어 한국에서 안정적인 미래 설계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 ④ 한국 동료들은 업무 시간 외에 외국인을 식사나 여가에 초청하지 않는데, 언어문제나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을 위해 비공식적 교류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4-3] 생활환경 애로사항 인터뷰 주요 내용

다. 향후 체류계획

- 향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이유로는 우수한 연구인력, 연구비, 첨단 연구시설·장비 등 우수한 연구환경과 연구자로 성장 가능성이 주요하게 작용
 - 한국에 온 이유처럼 우수한 연구인력, 풍부한 연구자금, 첨단 연구시설·장비, 경력 발전 가능성으로 계속 체류하길 희망하지만, 보다 나은 기회가 생기면 이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
 - 의료시스템 접근, 자녀교육 문제, 결혼 등 생활 적응 여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이며, 주거 비용이 저렴하고 자녀 양육비 지원이 제공될 경우 한국에서 연구 활동 지속 예정
 - 잘 발달된 대중교통, 초고속 인터넷 및 온라인 쇼핑, 한국문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국적 취득 가능성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 희망

□ 이와 반대로, 향후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로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 없는 급여, R&D예산 삭감, 승진기회나 경력개발의 한계, 높은 주거비용, 자녀교육 및 배우자 취업 문제, 가족과 가까이 생활하고 싶어서 등을 제시

○ 과중한 업무에 비해 혹독한 인사평가, 정년제도로 계속 일할 수 없는 환경, 언어 장벽으로 소속 그룹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역량 발휘나 경력 발전의 어려움으로 체류 포기 고려

○ R&D 예산 삭감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유지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체류의 고민 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나 연구비 신청 기회가 제한적이며, 한국에서 독립 연구자로 성장 기회 부족 및 경력개발에도 한계가 존재

○ 낮은 급여, 자녀교육 및 배우자 취업 문제, 주택비용 부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 실패, 부모님 및 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은 이유 등으로 체류 포기 고려

체류하려는 이유

- ① 현재 우수학생 확보와 연구자금 확보 성공으로 한국에서 계속 연구하길 원지만, 보다 나은 기회나 상황변화에 따라 이동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 ② 연구환경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 접근, 자녀교육문제, 결혼 여부 등 생활 적응여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출연연 연구원

떠나려는 이유

- ① 낮은 급여, 주택구입비 부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은 계속 체류에 대해 고민스럽게 합니다.
- ② 매년 실시되는 인사평가는 저녁, 주말, 공휴일까지 일할 수 밖에 없는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으며 매우 혹독합니다.
- ③ 영어환경에서는 과제제안서와 보고서를 잘 쓸 수 있으나, 한국어로는 서투러 이류로 남을 것 같아 떠날 계획입니다.
- ④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작업을 해도 언어문제로 프로젝트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경력성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⑤ 10년 넘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웠지만, 동료나 기관에서 초차 외국인, 이방인으로 보고 있어 조직구성원으로 통합되는데 실패했습니다.
- ⑥ 한국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싶고, 은퇴하거나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정년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합니다.
- ⑦ '24년 R&D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학생들의 급여를 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체류를 고민하게 합니다.
- ⑧ 자녀교육문제는 과도한 경쟁사회로 인한 높은 학업 성취와 개인의 인성이나 발달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도전적 과제입니다.
- ⑨ 가족과 함께 하는 편안한 모임이 그리워지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 ① 한국은 첨단 시설과 협력적인 연구자 커뮤니티가 있어 매우 활기찬 연구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 ② 한국은 의료로봇공학 분야에서 연구잠재력이 크다고 생각되어 머물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 ① 자녀양육비 보조금은 한국 아이들만 받을 수 있어 자녀양육비와 가족과 함께 살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② 하지만 주거비가 적당하고 자녀 돌봄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분명 한국에 머물며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 ① 한국은 여러 과학기술분야 혁신을 선도하고 우수한 연구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때문에 머물고 싶습니다.
- ② 좋은 연구환경과 친절한 동료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계속 머물 예정입니다.
- ③ 잘 발달된 대중교통, 초고속 인터넷 및 온라인 쇼핑, 한국문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머물길 원합니다
- ④ 비자만으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박사후 연구원

- 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연구비 신청, 교수 또는 독립 과학자 직책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 ② 외국인 과학자에게는 일자리, 연구비, 펠로우십(예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지원 안됨) 기회에서 종종 불공평하여 경력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③ 한정된 15일 휴가로는 해외에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 ④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로서 외국인이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어려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⑤ 아이가 외모적 다름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때문입니다.
- ⑥ 배우자가 지난 3년간 적합한 직장을 찾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림 4-4] 향후 체류 여부 및 이유의 인터뷰 주요 내용

라. 정책제안 및 기타사항

- 외국인 연구자의 유치·유입 확대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처우개선, 한국 연구자의 평판 제고 및 해외 과학자와의 교류 확대, 장학금·펠로우십 프로그램 및 연구환경 홍보 강화를 제안
 - 글로벌 수준에 맞춰 경쟁력 있는 급여 및 주거, 의료 및 교육, 가족이주지원 제공, 우수연구자 구인 광고를 국제컨퍼런스에 게시하고 다른 국가보다 신속한 채용 절차 마련 필요
 - 해당 연구분야에서 한국 연구자의 평판 제고, 해외 과학자 초청행사 및 유학생 초청 박람회 개최, 외국인 연구자의 성공 사례 공유 등 연구생태계 강점 홍보 필요
 - 정부, 대학, 민간 장학금을 모두 통합한 영어 플랫폼 구축,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및 연구 기회를 확대하여 매력적인 연구 장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필요
- 한국에서 외국인 연구자로의 성장·활약을 위해 연구비 지원 확대, 국가R&D지원시스템 영문 제공, R&D과제 심사위원 기회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고용안전성 강화, 행정부담 경감 등을 강조
 - 국내 거주 외국인 연구자의 일정 임계 규모가 될 때까지 전용 R&D 지원 및 연구비 지원 확대, 장기적 연구의 안정성 보장, 국가R&D지원시스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문화 등이 필요
 - 외국인 연구자들의 R&D과제 심사과정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
 - 조직 내 의사결정,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적 연구환경 조성 및 자유롭게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로 개선 필요
 - 외국인 연구자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멘토링이나 교육훈련 등 경력개발 지원,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몰두하도록 동기부여를 위한 보조금, 시상,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외국인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장기 거주를 위한 취업 기회 제공 필요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R&D 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 제한 완화 필요
 - 행정문서 이중언어(한국어, 영어) 지원, 연구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합리적 연구관리 규제개선, 외국인 연구책임자(PI)를 위한 장기 전담 연구행정인력 지원 등 행정부담 경감 필요
 - 외국인 연구자들의 비자 발급·갱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제도 등의 전문 지식이 있는 전담 행정 직원 배치 및 교육 필요




□ 외국인 연구자의 한국 생활 적응 및 장기체류 촉진을 위해 한국어 및 문화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주거 및 자녀 교육비, 휴가 등 복지 증진, 비자·귀화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

○ 외국인 연구자들의 유치·유지의 장애물은 언어와 문화적 요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외국인 연구자에 특화된 한국어 집중교육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외국인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거주 및 정착을 위해 신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머물 수 있도록 게스트 숙소 마련

○ 장기 거주를 위해 주택자금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자녀교육비 보조, 타국 멀리에 있는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휴가 기간 확대 등 복지 증진 필요

○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비자의 특별 혜택 제공 및 비자·영주·귀화 처리절차 간소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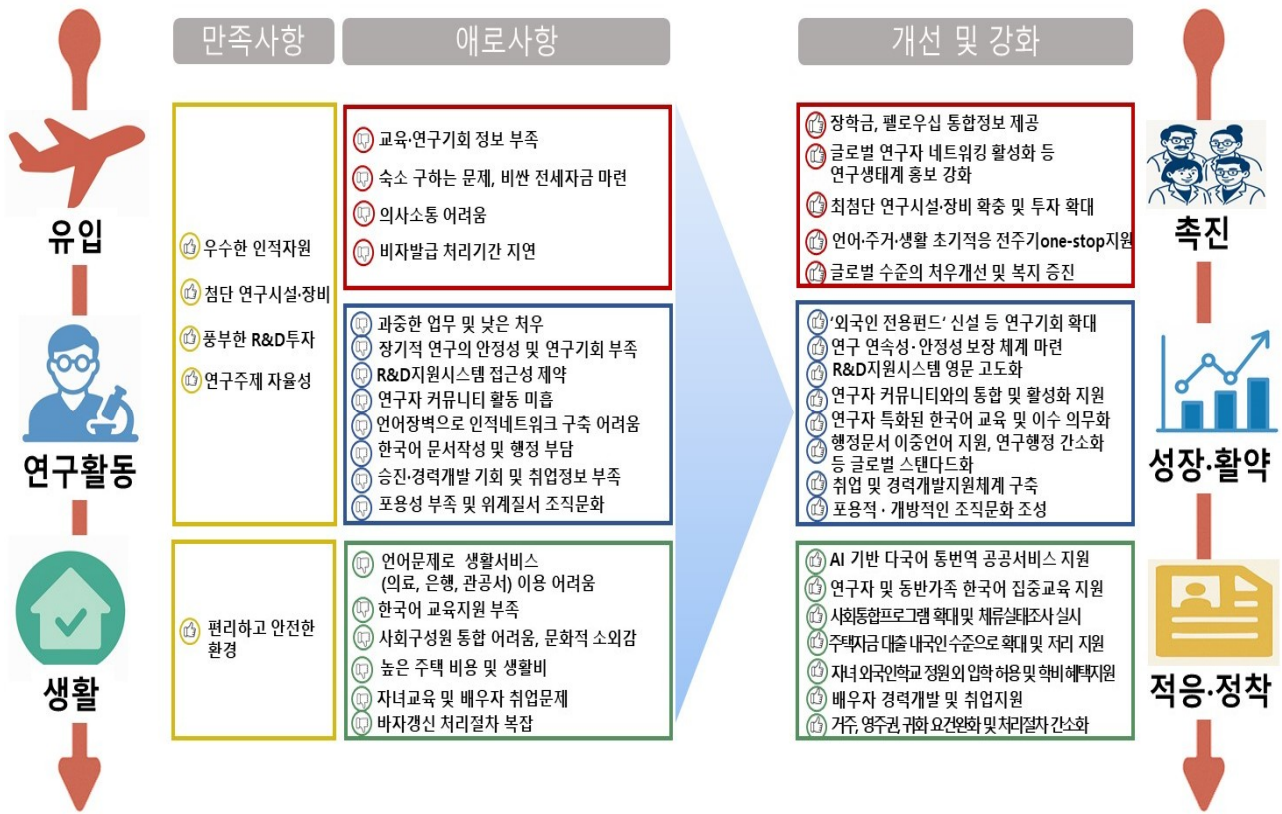
	정책 제안 (유치·유입)	정책 제안 (성장·활약)	정책 제안 (적응·정착)
 대학교수·출연연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의 과학자 초청 포럼 개최 및 연구실 투어를 제공하면 협업기회가 생기고, 자신 및 동료, 졸업생에게 연구기회를 추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연구생태계 강점 홍보, 외국인 연구자 성공사례 공유, 한국 연구자들의 국제 학계에서 평판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컨퍼런스나 세계 상위대학의 우수 연구자 연구인력 개시편에 함께 게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속한 채용절차가 필요합니다. 세계의 인재 유치경쟁에서 이기려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급여 및 복지 제공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에 기여하도록 전용 연구비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 과학기술 정책이 일관성이나 장기적 연구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의 연구환경 평판에 부정적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 과제심사과정에 외국인 연구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연구자들이 리더십의사결정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포용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하는 문화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연구환경을 위해 연구의 공식언어인 영어로 국가 R&D지원시스템 및 문서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합리적 규칙(예: '25년 학회 등록비'를 '24년 예산 사용 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연구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연구자는 행정직원의 부서이동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기 때문에 정기적인 행정전담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도록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고 연구자들의 한국어 교육 요구사항은 교환 학생이나 다른 유형의 이민자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특별히 겨냥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에 익숙해지고 적합한 숙소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중앙시 게스트 숙소 제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에게 은행 대출이 제한적이어서 비싼 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무이자나 저리 대출 제공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이 외국인 R&D인력을 고용할 때 내국인 직원수에 비례해 제한하는 비율을 완화하면 좋겠습니다. 영어 멘토링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전문성 향상과 포용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유치노력은 기울이지만, 유지를 위한 투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은 한국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한국의 성장과 혁신에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연구자의 경력개발과 성장을 위해 유사분야 연구자 간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이 혁신을 추구하도록 연구비 지원 확대, 인센티브, 장학금, 시상 등을 통해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의 장기체류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중언어 기반의 행정 및 연구지원시스템은 외국인 연구자들이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합니다. 최근 R&D예산 삭감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외국인 비자 제도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직원 전담배치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비자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나 거부되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발급 처리절차나 서류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기체류를 계획한 사람에게 주거지원이나 자녀교육비, 보조금 같은 패키지를 지원하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기 어렵기 때문에 언어 및 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박사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대학, 민간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교환프로그램을 모두 모은 영어 통합플랫폼 구축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외국인 연구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포럼, 유학생 초청 박람회 등을 통해 한국의 연구환경 홍보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연구자 필수우선 프로그램과 연구기회를 확대하여 매력적인 연구장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위해 주택지원, 의료 및 교육지원, 가족이주지원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연구자의 경력개발과 성장을 위해 유사분야 연구자 간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이 혁신을 추구하도록 연구비 지원 확대, 인센티브, 장학금, 시상 등을 통해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의 장기체류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중언어 기반의 행정 및 연구지원시스템은 외국인 연구자들이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합니다. 최근 R&D예산 삭감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하게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외국인 비자 제도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직원 전담배치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학부생을 위한 훌륭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연구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 연구시작전에 한국어 집중교육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연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주거, 15일 휴가개선, 정기적 출근명령서 등 복지증진이 필요합니다. F-2-7S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외국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제도이나, 갭신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뛰어난 외국인 연구자들이 영주나 귀화 신청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림 4-5] 정책제안 인터뷰 주요 내용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 외국인 연구자들의 한국행 선택 및 계속 체류 여부는 해당 연구 분야의 명성, 우수한 연구 환경, 연구경력 발전 가능성, 경쟁력 있는 급여, 편리한 생활, 가족 문제 등에 의해 결정
 - 외국인 연구자들의 만족 사항은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첨단 연구시설·장비, 풍부한 연구자금으로 인한 연구자로 성장 가능성, 연구 주제 자율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등으로 조사
 - 반면, 애로사항은 언어장벽, 낮은 처우, R&D지원시스템 접근성 제약 및 연구몰입도 저하, 경력개발 한계, 위계질서 조직문화, 높은 주거비, 자녀교육 및 배우자 취업, 비자제도 문제 등으로 파악
 - (유입 초기 애로사항) 한국에서의 연구기회 정보는 주로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며, 홍보 부족 및 한국어 게시로 정보검색이 쉽지 않고,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 어려움, 숙소를 구하는 문제, 비싼 전세자금 마련, 비자발급 절차의 까다로움을 경험
 - (연구환경 불만족) 과중한 업무 및 낮은 처우, 연구의 연속성·안정성 및 연구기회 부족, R&D지원시스템 접근성 제약, 언어장벽으로 연구자 커뮤니티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어려움, 한국어 문서 작성 어려움, 행정부담, 승진 기회나 취업 정보 부족,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파악
 - (생활환경 어려움) 언어 문제에 따른 의료·은행·관공서 등 생활 서비스 이용 불편과 한국어 교육 부족, 문화적 소외감, 높은 주거비, 자녀교육 및 배우자 취업 문제, 비자 발급·갱신 절차 복잡 등으로 파악
- 세계 각국의 치열한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재 유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을 위해 우수 외국인 연구자들의 유입 매력도와 연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정착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해외 우수 연구자의 유치, 유입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처우개선, 한국의 연구생태계 강점 홍보, 유학생 장학금 및 연구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정보제공,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
 - 외국인 연구자들이 초기에 입국 준비부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주기 과정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
 - 한국에서 외국인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 확대 및 한국의 연구커뮤니티로 통합 지원,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한 연구생태계 조성 필요
 - 외국인 연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을 위해 언어장벽 해소, 배우자 취업 및 자녀 교육 문제 지원, 비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



[그림 5-1] 외국인 연구자의 유입 추진-성장·활약-적응·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 정책과제 및 제언

□ (제언 1) 외국인 연구자들의 유입 촉진을 위한 처우개선 및 연구 허브 구축

○ 글로벌 수준의 처우개선 및 AI,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해외 Top-Tier 연구자 대상 연구-정주 풀-패키지로 지원하여 정착과 성과 창출 유도

- 선진국 대비 경쟁력 있는 급여, 일-생활 균형, 예우, 세제, 정주 등 글로벌 수준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으로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유입 촉진

- 국가가 필요로 하는 AI, 반도체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해외 Top-Tier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 연구비, 비자, 정주 여건 등을 연계하여 풀-패키지형*으로 지원

* 유치 - 고용 및 파격적 대우 - 연구개발(연구비, 연구인력, 시설장비 등) 지원 - 비자 - 정주(주택, 가족 이주 지원, 배우자 취업, 자녀학교, 의료, 세제, 언어교육, 귀화 시 인센티브 지원) 등

○ 외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을 연구 장소의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도록 최첨단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국내 연구자들의 평판 제고, 글로벌 연구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 등 우수한 연구생태계 홍보 강화

-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방사광 가속기, 양자 연구시설, 항공우주센터 등 대형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투자 확대

* CERN(유럽 입자물리연구소)과 같은 국제 공동 연구시설 유치 및 운영

- 본국·제3국으로 이동한 지한파 출신과의 교류*, 해외 연구자 초청 학술대회 개최, 국내 연구자의 국제무대에서 연구 성과 발표 기회 확대 등 글로벌 연구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
 - * '(가칭)K-Alumni Network'을 구축하고 한국의 최신 연구동향, 행사 등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송, 우수 석·박사 유학생 후보군 발굴 및 ODA 사업, 기업 해외 진출 시 현지 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
 - 외국인 연구자의 성공 사례 발굴 및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유학생 초청이나 연구자 구인 광고 홍보 책자 등에 소개
 - 정부 초청장학금(GKS), 대학 장학금, 민간 및 산업체 후원 장학금과 연구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국어 통합플랫폼 구축
- 외국인 연구자들이 입국하여 언어·주거·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 해결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초기 적응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one-stop) 지원강화
- 외국인 연구자들이 입국 전에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지역·국가별 한국어, 문화 교육기관* 등을 확대
 - * 한국교육원(43개), 한국문화원(35개), 세종학당(248개소), 한글학교(1,465교) 등
 - 외국인 연구자들의 신규 입국 시 적절한 거주지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외국인이 많은 권역별로 게스트 하우스 '(가칭) Korea Dream Stay House' 운영지원
 - 외국인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 비자, 연구, 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북 발간* 제공 및 전주기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 비자, 의료보험 및 병원, 은행, 교통,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주거, 세금, 교육, 연구정보 및 R&D지원시스템 소개 등 생활과 연구에 관련된 필수 정보를 영어 또는 다국어로 제공
 - ** 연구인력에 특화된 '사전지원 - 입국지원 - 생활지원 - 사후관리' 등 전주기 밀착 지원

□ (제언 2) 외국인 연구자들의 국내에서 지속 성장·활약 지원 고도화

- 외국인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회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종료 후 국내에서 독립 연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내 연수프로그램 국적 범위 확대* 및 유입된 초기 경력단계의 외국인 연구자 대상 전용 펀드** 신설
 - * 세종과학펠로우십,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사업 연수지원 등에 외국인 별도 예산 신설
 - ** 국내 거주 중인 초기경력단계의 외국인 연구자는 의사소통 제약, 정보 부족 등으로 연구 수주가 힘든 사향으로 핵심기술분야 중심의 주제를 공모하여 3년 이내 지원
 - 외국인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며 경력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연)* 중심으로 외국인 연구자의 성장 경로를 마련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산
 - * 출연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등을 중심으로 출연(연) 정규 T.O와는 별도로 우수 외국인 트랙을 신설하여 참여연구원 또는 별도의 연구비 지원
 - 외국인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자 커뮤니티와의 통합 및 활성화를 위해 멘토링*, 국가R&D과제 평가위원 활동** 지원
 - * 외국인 우수인재의 연구분야에 맞는 국내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기획 및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등 한국의 연구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
 - ** 외국인 전용지원사업, 기초연구지원사업, 국제협력사업 등 영어 신청 연구과제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 활동 시범 지원

- 외국인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몰두하도록 연구의 연속성·안정성 보장,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자문 기능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과학의 날 시상, 행사 초청 추진
 - * 과학기술 정책 변경 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협의 기간 등의 절차 마련
- 외국인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기회 확대 및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
 - 외국인 연구자의 국가R&D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중언어(한국어·영어) R&D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범부처 차원의 정부R&D사업 설명회 개최, R&D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 각종 연구개발지원 신청서·서식, 지식재산권(IP) 및 연구보안, 연구관리 규정 등 영문판 가이드북 제공, 범부처 통합지원시스템(IRIS) 영문 홈페이지 고도화
 - ** R&D 기획서 작성, R&D 프로젝트 및 평가, R&D사업과제 선정평가 대응 전략, 특허와 기술자산 확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윤리, 연구보안 및 기술보안 교육 등
 - 국가 차원에서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 행정 간소화*, 행정문서 이중언어 지원, 행정 전담인력 배치** 기관 권고 등 제도개선 추진
 - * 비합리적 연구 관리 규제 개선, 연구비 신청 및 보고 절차 간소화 등
 - ** 외국인 연구책임자를 위한 장기적인 전담 행정인력 지원, 비자, 세제,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영어 능통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계속 변화되는 제도 등에 대해 교육 추진
 - 외국인 연구자들의 조직 적응과 조직 내 의사결정, 리더십 발휘 기회 제공을 위해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다양성 촉진 인증기관' 제도** 운영 등 포용적·개방적인 문화 조성
 - * 내국인과 외국인 연구자 모두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네트워킹 기회 확대
 - ** 성과 우수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같은 혜택 지원(중소기업 세제혜택, 정부 조달계약 시 가점, 정부지원 사업 가점 등) 및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시 성과지표로 발굴하고 가점 부여 등
-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자들의 취업기회 제공,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재유출 방지
 -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 지식과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코업(Co-Op) 전문석사과정* 개설 및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 석사과정 동안 대학에서 이론 수업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도록 구성
 - **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여 외국인의 취업·정주 실패 최소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가점 부여
 -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직종에 특화하여 국내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 전용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 지원 플랫폼* 구축
 - * (취업정보 통합플랫폼) RNDJOB(과기정통부), STUDY IN KOREA(교육부), K-WORK(중기부, 다국어 지원), 고용24(고용노동부) 등이 운영되고 있어 접근 편의성을 위해 상호연계 및 다국어 지원
(취업지원센터) 권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친화적 기업 발굴·소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이력서, 면접 준비, 영어상담, 취업 성공사례, 직무별 요구되는 스킬 정보제공 등
(취업비자 컨설팅) 노무사, 행정사 등 비자 및 이민법 전문가 풀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취업비자 서류 준비, 신청절차 안내, 법률 자문 등 무료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연구자들이 국내 연구환경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외국인 특화 경력개발 플랫폼 ‘(가칭)Hello K-R&D’* 구축, 중소기업 유급학습휴가제** 활성화 등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 * 외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개발 정보, 성공사례, 직무역량교육, 경력개발 컨설팅 지원 및 이력관리·인증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비자 역량검증체계 등에 활용
- ** 재직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

□ (제언 3) 외국인 연구자 친화적인 생활·정주 환경 조성

- 외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에서의 삶과 일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유입 초기부터 한국어, 사회, 문화 등 사회통합 교육 확대
 -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특화한 맞춤형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 및 외국인 정규직의 한국어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국가·유사 연구분야 외국인 연구자 간의 경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 * 유사 분야 고경력 과학기술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언어뿐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지원
 - **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자 대상 학술대회 개최, 학술교류, 강연, 멘토링, 한국 생활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외국인 연구자 및 동반가족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 사회통합 교육 확대를 통해 생활과 정서적 안정 도모
 - * 전통 음식, 명절, 역사적 장소 탐방 등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국적별 커뮤니티 활성화 등
 - 국내 체류 외국인 연구자의 직업생활,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가칭)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체류 환경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외국인 연구자의 안정적인 체류, 정착을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 배우자 취업 및 자녀교육 지원, 각종 행정·생활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다국어 지원강화
 - 외국인 연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의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및 저리 대출, 가족 이주 비용 지원, 휴가 기간 확대 등 복지 증진
 - 외국인 연구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배우자(F-3)의 취업 허용범위 확대*와 경력개발 교육·취업 지원, 자녀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학비 감면 등 혜택 지원**
 - * 동반가족(F-3)은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하나, 법무부는 사이언스 카드, 골드카드, K-Tech Pass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취업 허용 및 범위 확대 추진 중
 - ** 국제학교 및 외국인학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정원 외 입학 허용 및 수업료(2천만원~5천만원 수준) 할인 지원
 - 외국인 연구자들이 행정, 생활 서비스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통번역 기능을 탑재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다국어 지원 강화*
 - * 각종 공공기관 행정 서식 작성, 법제도 및 체류자격 정보, 생활, 의료 안내 등에 AI 기반의 다국어 자동 통번역 기능 플랫폼 구축 및 한국에 적응한 다국적 외국인 봉사자 풀(pool) 구축하여 상담 지원

- 외국인 과학기술인재들이 합법적인 근무 자격을 확보하기 쉽도록 거주, 영주권, 귀화의 취득 기준 완화 및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이공계 학위자 대상 구직 비자(D-10) 발급 또는 연장 시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본 체류기간 확대* 및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 *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기본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최장 3년까지 확대
 - ** 4대 과기원 및 UST 대상의 석·박사 학위자 외에 국내 대학원생 중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예 : 권위 있는 학술지 게재자, 특허발명 보유자 등)의 명확한 기준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대상자 확대
 - AI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및 최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영주권·귀화 신청 기간* 단축 및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외국 국적 포기 의무화 제외 등 혜택 지원
 - *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K-Tech Pass는 3년 거주(F-2) 후 영주(F-5) 전환 자격 부여
 - ※ 중국은 중국발전에 탁월한 기여자인 경우는 중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독일의 블루카드는 27개월 이후 영주권 신청 가능(독일어 실력 B1을 증명할 수 있으면 21개월 이후부터 가능)
 - 이공계 외국인 R&D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완화 및 구인난이 심한 지역이나 업종은 비율 확대
 - ※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특정활동(E-7)으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20% 내에서 가능하고, 5인 미만의 내수 위주 업체는 불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5.6)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안), 2024. 6.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2024. 8.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 기술수준평가, 2024.2.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인구절벽시대, 이공계 대학원생 현황과 지원 방향, STEPI Insight 제306호, 2022.10.19.
-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2023.4.6.
-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2022.7.1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5.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 월보, 각 월.
- 이민정책연구원, 국내 외국인 연구자 실태조사 연구, 2021.7.
- 한국교육개발원,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각 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외국인 연구인력 활용현황, 2023.12.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원시자료2021~2023).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각 연도.
- BAMF, Migrations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23, 2025.1.
- CSIS, Innovation Lightbulb: Foreign-born Share of the U.S. STEM Workforce, 2024. 4. 5. (<https://www.csis.org/analysis/innovation-lightbulb-foreign-born-share-us-stem-workforce>)
- DSIT(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 Leading lights of UK research spearhead search for world's best talent, 2025.7.18.
- GWK(Gemeinsame Wissenschaftskonferenz), Pakt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Monitoring-Bericht 2024, 2024.
- IMD, World Talent Ranking, 각 연도
- INSEAD,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3, 2023.11.
- NSB, The STEM Labor Force, 2024.3.
- Stanford HAI, The AI Index Annual Report, 각 연도.
- WPI, 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Initiative, 2024.6.

저자

- KISTEP 인재정책센터 김인자 연구위원 (kij@kistep.re.kr, 043-750-2334)
- KISTEP 인재정책센터 김경민 연구원 (kmkim@kistep.re.kr, 043-750-2758)